

2009 문화계 결산 (중) 공연



광주국제공연예술제에 참가한 '로미오와 줄리엣'

올 한해 광주 공연계는 어느 때보다 풍성한 한해였다. 짧은 준비 기간으로 다소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던 광주국제공연예술제는 수준 높은 작품과 관객들의 참여로 광주 대표 문화 행사로서의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 이탈리아 '아페르 발레토'의 '로미오와 줄리엣' 산 카를로 극장의 오페라 갈라 '투란도트' 등 정상급 공연을 부담없는 가격에 선보여 많은 호응을 얻었다. 관람 인원 1만 4천 760명, 객석 점유율 82%, 유

을 펼쳤다. 국극단은 창극 '아, 유관순'을 광주 뿐 아니라 창원·대구·천안에서도 공연하는 등 성과를 거뒀다. 개별 장르 가운데 가장 바빠 움직인 분야는 단연 연극이었다. 광주연극제와 소극장축제에 이어 광역시 교류전 등이 열렸다. 또 극단 '크리에이티브 드라마' 등 개별 단체들의 활동과 한달 이상 진행되는 장기 공연도 늘어나면서 '무대에 설 배우가 부족하다'는 하소연까지 나올 정도였다. 하지만 울려진 편수에 비해 눈에 띄는 공연은 드물어 작품 완성도 면에서는

또 모차르트 바이올린 소나타 전곡 연주회를 마무리한 박다연·구재형 씨의 행보는 의미있었고 전남대 '도레미 프로젝트' 등 지역사회의 함께하는 '문화나눔' 등은 새로운 흐름이었다. 반면 울초 법적문제까지 확대된 회장 선거를 둘러싼 광주음악협회의 내분은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미사 마이스키, 김선옥, 리처드 오제 오닐, 21일 공연을 앞두고 있는 사라 장 등 지역을 처음 찾는 정상급 클래식 연주자들의 공연은 화제를 모았다. 무용분야의 경우 제 18회 전국무용제에서 광주현대무용단의 '천개의 공간'이 금상과 안무상·연기상 등을 수상하며 광주의 자존심을 지켰으며 '성 김대건' 등 굵직한 작품들도 무대에 올랐다.

국악 분야는 퓨전 앙상블의 활약이 두드러졌으며 특히 젊은 연주자들의 독주회가 많이진 게 눈에 띄었다. 전남도립국악단은 국악 뮤지컬 등 다양한 시도로 국악 저변화에 기여했다. 지금까지 지원금액 중 가장 많은 최고 1억원까지 지원된 광주문진위 지역형 협력사업은 공연계의 핫이슈였다. 1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공연', '꽃비', '아리' 등의 작품이 무대에 올랐지만 일부 작품의 경우 완성도 면에서는 아쉬움을 남겼다.

그밖에 5월 개관한 유·스퀘어문화관은 공연장 부족에 허덕이는 문화계의 숨통을 트여줬다. 특히 클래식 전용홀은 연주자나 클래식 팬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다. 이어 12월에는 시설면에서 아쉬기는 하지만 무채국보합 광주아트홀이 문을 열었고 호신대음악홀도 새단장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국제공연예술제 대표 문화행사 성장 가능성 시향 등 시립예술단체 '약진'...연극 분야도 활발 지역협력사업 대형작 무대에... 작품성은 아쉬움

료객과 80%에 육박했고 티켓 수익금도 1억 5천만원에 달했다. 신종플루 영향으로 행사가 축소돼 유명 공연을 내열하는 식으로만 진행된 점은 아쉽지만, 일단 시민들에게 공연예술제의 존재를 부각시키고 호응을 이끌어낸 점은 의미있었다. 프로그램 다변화, 사무국의 안정적 운영은 속제로 남겨졌다. 새로운 수장을 영입한 광주시립예술단체들의 약진도 두드러졌다. 구자범씨를 상임지휘자로 영입한 광주시향은 새바람을 일으키며 클래식팬들과 시민들에게 한층 다가섰다. 김유미·심인택씨가 신임 단장으로 취임한 무용단과 국악관현악단 역시 창작국악발레 '명성황후'를 함께 만들어내는 등 다양한 활동

아쉬움을 남겼다. 서울 작품의 소극장 공략도 눈에 띄는 흐름이었다. 몇차례 공연하고 떠나는데서 벗어나 '죽이는 이야기' 등은 한달간 장기간 공연을 진행, 지역 극단들도 경쟁력을 갖추는데 힘을 쏟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푸른연극마을이 고남마루 전극장호연극제에서 '달아 람아 영광야'로 대상과 연기·연출상 등 3관왕을 수상하는 경사도 있었다. 지역 클래식계는 정중동의 모습이었다. 눈에 띄는 큰 행사보다는 개별 독주회가 주를 이룬 가운데 여성성악앙상블 '더심어즈' 피아노 트리오 'GU', 현악4중주단 'Rang' 등 클래식 앙상블이 잇따라 창

“도시와 친구들이 화폭에 나타났어요”

광주신세계갤러리 28일까지 '오즈의 마법사'展

회화·사진·조각·공예·설치작품 40여 점 선보여

도시, 두뇌가 없는 허수아비, 심장이 없는 양철 나무꾼, 겁 많은 사자, 서쪽 마녀... 소설 '오즈의 마법사'에 등장하는 재미난 캐릭터들이 화폭을 수 놓는다.

광주신세계갤러리는 오는 28일까지 오즈의 마법사를 테마로 한 회화, 사진, 조각, 공예, 설치 작품 40여 점을 선보이는 '오즈의 마법사'전을 연다.

이번 전시에는 김미나, 김상연, 김현지, 노정숙, 박수만, 박형규, 위승연, 이동환, 이셋별, 이정기, 이정록, 윤남웅, 조광석, 조수진, 최미연, 최재영씨 등이 참여한다. 이들은 평범한 시골 소녀의 환상적인 모험담을 담은 프랭크 바움의 소설 '오즈의 마법사'(1900년 작)에 등장하는 기발하고 상상력 넘치는 마법의 세계를 펼쳐보인다.

박수만, 이동환, 김현지씨는 소설 속 등장인물의 우스꽝스러운 표정을 재해석한 작품을 선보이고 이정록, 박형규씨 등은 단추나 실 등을 이용한 평면 작품을 전시한다.

위승연씨는 별과 하트 문양을 이용해 심장을 갖고 싶어하는 양철



이정기 작 '도시의 친구들'

나무꾼의 가슴에 아름다운 심장을 달아 주었다.

또 윤남웅씨는 오즈의 마법사 테마로 티셔츠, 목걸이, 인형 등 아트 상품을 제작해 재미를 더한다.

소설 속에 등장하는 은구두, 양귀비꽃 등도 예술 작품으로 변신했고, 양철나무꾼을 모델로 한 나무 조각 등도 볼만하다. 문의 062-360-1630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서예가 홍동의 개인전

21~27일 광주 대동갤러리

남도 서예의 맥을 잇고 있는 서예가 홍동의씨가 서울 전시(10~16일·백악미술관)에 이어 오는 21~27일 광주 대동갤러리에서 개인전을 연다.

이번 전시에서 그는 엄정하면서도 단아하고, 살아 움직이는 듯 생동감 있는 글씨체를 선보인다. 해서·전서·예서·초서·행서·한글 등을 넘나드는 다양한 글씨의 아름다움이 고스란히 담겼다.

또 묵향 가득 스며든 사자영어나 시, 불교 용어 등의 문구는 인생의 길잡이가 될 만한 깨우침을 준다.

서예평론가 김병기(전북대 중문과 교수)씨는 “고법을 중시하지만 욕심을 버린 무던한 글씨이다”면서 “거짓이 없고, 쓸데없는 과장을 하지 않는 서예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고 평했다.

학정 이돈홍 선생을 사사하고, 조선대 교육대학원 한문교육학 석사를 마친 그는 한중서법교류전, 대한민국미술대전 초대작가전, 중



'화풍'

국문화원초대전 등의 전시에 참여했다.

또 대한민국미술대전 특선, 송곡서예상 등을 받았으며 대한민국서예대전 심사위원 등을 역임했다. 현재 한국미술협회 서예분과 위원, 국제서예가협회 사무국장으로 활동 중이다. 문의 062-222-0072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웃음과 감동의 연극 '환상동화' 공연

27일까지 광주 아트홀

서울 극단들이 광주에서 장기 공연을 할 때면 코믹 연극이 주를 이루고 지방투어팀을 따로 꾸린다. 27일까지 광주 우체국보합 광주 아트홀에서 공연되는 '환상동화'〈사진〉은 이런 관행을 깬다. 웃음과 목직함 감동이 있는 독특한 연극으로, 서울 무대에 섰던 배우들이 출연, 극을 완벽하게 살린다. 큰 줄기는 전쟁으로 소리를 잃어버린 음악가와 시력을 잃어버린 무용수의 애절한 사랑 이야기다. 뻔한 스토리일 수 있지만 이

야기를 풀어가는 방식이 신선하다. 극을 이끌어가는 주인공은 전쟁, 사랑, 예술을 상징하는 3명의 광대.

'사랑의 슬픔처럼 즐거움은 없으며, 사랑의 괴로움처럼 기쁨은 없다. 사랑에 죽는 것처럼 행복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랑 광대와 반론을 제기하는 예술·전쟁 광대는 한스와 마리의 사랑을 들려준다.

뛰어난 앙상블과 아름다운 대사가 어우러진 '환상동화'는 놓치지 말아야 할 작품이다. 가격 3만5천원. 문의 1544-5010.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그 명성, 그대로. 탐과 열정과 합격의 명예가 함께합니다.
2010년 시험 참여를 위한 최선의 선택!

9급 공무원 강좌

2010년 공무원 정원 4,800명 증원, 2011년까지 세무직 1472명 증원, 2013년까지 소방직 8000여명 증원 예정

“이제 대세(大勢)는 ‘무등고시학원’입니다”

【정규종합반, 야간반, 단과반, 문제풀이반】

일반행정직/세무직	계열별 대강의	법원직/검찰직
출판직/관세직	1월 4일(월)	교정직/소방직
9급교육행정직		복직직/기술직

2010대외공개설명회 : 12월 9일 / 12월 26일 15:00 본원 201 강당
당일 공개설명회 참석 후 등복시 공부패용 교재 무료제공

10급 기능직 특채 및 일반직 전환 대비

2010년 전직, 승진시험 및 10급 기능직 특채 대비

박찬걸, 임강석 교수팀, 연중상설 강의 개설

- 각 과목별 8주완성
- 야간반, 주말반 동시 개강

개강 및 공개 설명회 1월 9일(토) 14:00

무등고시학원

www.mdgosl.co.kr

위치 광주동부경찰서 뒤 ☎(062)222-4560

광문공인중개사

☎ 062-365-1920

모텔 임대 매매 전문 교환

- 신축 무인텔 급임대 무인텔 월매출 5천이상 4억5천에 월 1,500만원 신축모텔 부지다량 확보!
- 일반모텔 월매출 5천이상 급 매매가 15억원 은행대출 8억 실투자금 7억 OK
- 전국 모텔 임대 매매 전문 → 손님 외곽과월하고 일짜배기 모텔!
- 순천 모텔 임대 보증금 3억 월 900만원 목포 해안도로쪽 모텔 급 매매 다량 확보!

- 목포 → 모텔, 사우나, 주차장, 세차장
- 대지 → 350평, 건평 600평 월순소득 2,000만원 이상 확보
- 교환조건 → 모텔, 땅, 토지, 임야 해남권 → 독점 모텔 매매가 5억7천 월순소득 1,500만원 이상 확보!
- 모텔임대사업 3~4억 투자하시면 매월 1,000만원 이상 소득 확보! 등기필 100%

010-7637-7743, 010-4703-6223, 011-623-8972

동북아 경제 중심지.. 서해안, 새만금을 주목하라!

세민금~변산~고사포~경포~상록~모항 해수욕장까지의 투자 벨트 형성

○검증된 추천 물건○

- 상록해수욕장이 보이는 펜션부지 300평(전) - 평당 80만원 150평(전) - 평당 80만원 470평(전) - 평당 150만원(상가 및 펜션,분할가능)
- 경포 바닷가, 펜션, 모텔부지 500평 - 평당 180만원(대,전,모텔,1동 포함)
- 전원주택 및 투자부지 1000평 - 평당 25만원(당) 500평 - 평당 60만원(부인텔,주택1동 포함) 1200평(전)-평당 35만원 (2~300평 분할가능) - 투자물건 다량확보중(소액부터 다액까지)

*새만금 관광시대 임박으로 펜션 투자시, 광주지역 원룸투자의 절반 금액으로 수입은 3배이상, 금리는 년 25%이상 보장되는 물건만 취급

*2010년초 방조제 개통으로 지금이 투자 적기

*오랜 실무경험으로 매입에서 매도까지 책임중개

- 상가/모텔 투자 물건(지상 5층) 완도읍, 중심 상권내 대지 80, 건평 320평 매매가 10억 보증금 4,000만원 월 매출 1,230만 이상

서해안·새만금 지역 전문 중개업소
보임부동산투자개발

상담번호 : 062-527-8844/010-8004-5900/016-609-5888

부동산투자클럽

T. 011-641-0925, (062) 515-4985

상가건물(계림동 동부소방서) 대 453㎡/ 건 2011㎡ (사우나+원룸21실+주택)
- 수익률 13%이상 매매가 20억(실적 10억, 조정가)

▶상가건물(완도읍 여객선터미널) 대 280㎡/ 건 989㎡(상가+모텔19실+주택)
수익률 아주 좋음 매매가 10억(조정가)

토지(광주호상류-가든식당, 과수원, 임야)
- 34.830㎡ 매매가 3.3㎡당 12만원(분할가)

▶농지(무안군 운남면) 23.600㎡(바닷가,계곡관리지역)
매매가 3.3㎡당 20만원

대지(신촌동) 764㎡(버스승강장, 전철역 5분거리)
- 매매가 ㎡당 36만원(원룸, 빌라, 물류창고적합)

▶고시텔(전대후론 체육공원 인근) 대 282㎡ 건 580㎡ (최근준공) 룠52(룰당 월임대료 23만원) 매매가 8억5천

대지(북구 신안동)402㎡(물류창고적합)
- 매매가 3.3㎡당 150만원

▶농지(전.담양군 금성면) 883㎡ (관리지역)
매매가 3200만원(조정가)

농지(충효동-광주호상류)전 1,927㎡
- 각종 유실수 100여 주식제, 매매가 ㎡당 925천(가격조정가)

▶가든식당(월출산국립공원 인근) 7,865㎡ 식당, 숙박업, 단란주점, 체육시설, 농장 모든시설 허가 필 - 매매가 3.3㎡ 당 32만원

경매부동산상당, 대출상당, 각종부동산투자상당

부동산투자클럽 공인 중개 사무소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1370-3(용봉동 하이마트 옆)